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사모하는 情’ 안타까운 속내 드러내

〈완당척독(阮堂尺牘)〉은 추사의 편지를 모아 상, 하(上下)로 편집한 책이다. 1867년 〈담연재시고〉와 함께 간행된 〈완당척독(阮堂尺牘)〉은 추사와 교류했던 당대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백파와 초의 같은 승려들에게 보낸 편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추사의 학맥이나 교류 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답초의상인〉장에 분류, 총 12신이 수록되었는데, 12신의 편지 중에는 〈완당전집〉 ‘여초의’와 〈벽해타운첩〉, 〈영해타운첩〉에 중복된 편지가 무려 11신이나 되고, 여기에 소개할 편지만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강상(江上)에 머물던 시기에 보낸 편지라 추정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겨우 읍내에서 온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받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달 승려가 가져온 그대의 편지를 받고, 돌아간 후에도 참선과 독송(讀誦)이 길하고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편지를 받은 후에도 수행이 가볍고 편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이, 이 세간에도 맑고 신성한 부처님의 은택이 내려져 (세간의)사람을 다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행차는 모레쯤 길을 떠난다하여도 그대와 함께하기는 또한 멀 것입니다. 강상의 구름과 안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생각으로만 사모하는 정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설령 생각과 마음을 놓아버린다하여도 일종의 속진 뿌리를 반드시 갈아 없앴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금강의 영신에 의거하여 논한다 해도 이는 들쭉날쭉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케 합니다. 만약 나의 행차가 잘못된다하여도 멀리 밖의 일이니 어찌 반드시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곧 달 승려를 선사(仙寺)로

추사의 편지를 모아 상 · 하로 편집한 책 〈완당척독〉.

〈완당척독〉 추사 편지 모은 책
추사의 학맥과 교류 자료
초의에게 보낸 편지 12신 수록

돌려보내더라도 찾아 온 곳이니 그대는 당연히 나의 습관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웃겠지요. 껄껄… 응언(應彦)과 정 두 승려가 만일 읍의 역참(驛站)을 따라온다면 마침내 지난 일을 보답할 수 있으리니 미리부터 기다려지고 기다려집니다. 여기 복 승려가 돌아간다기에 잠시 이곳의 소식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從邑便有書 未知收照歟 達衲之來 承獲梵緘 知歸錫吉利 想於書後 禪誦輕安 不覺此世間 梵雨 人甚善甚善 此行以再明起程與師亦遠矣 江上煙雲能無頭依依戀否 雖遣想遣心 一種根塵必有不可磨滅處耳 金剛依領信論之 又此參差 令人可歎 如失此行遠外事 又何可必也 卽使達衲轉送仙寺爲推來地 師當笑我習有未除矣 且呵且呵 彦靜兩衲若往邑站來會可酬夙昔 預企預企玆因福衲之歸 暫此申復 都留不式)

추사가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나의 행차는 모레쯤 길을 떠난다하여도 그대와 함께하기는 또한 멀 것입니다”라 한 것으로 보아 초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경황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강상의 구름과 안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생각으로만 사모하는 정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초의에게 되물어 자신의 안타까운 속내를 표현하고 있다. 한편 세속에도 맑고 신성한 “부처님의 은택이 내려져 (세간의)사람을 다스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기원했던 그였지만 생각과 마음을 “놓아 버린다하여도 일종의 속진 뿌리를 반드시 갈아 없앴다는 것은 불가한 것이 있다”는 현실을 탄식하였다. 언과정 승려는 추사에게 도움을 준 인물인 듯, 정 승려와 편지를 전한 달 승려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응 승려는 만덕사에 주석했던 혜장의 제자, 체경(鯨)인 듯하다. 〈동사열전〉에 “그는 영암 사람으로, 만덕사에서 출가하였고, 어려서부터 강개(慷慨)한 뜻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읍의 역참을 따라 온다면 “지난 일을 보답할 수 있어서” 미리부터 기다려진다는 추사의 말은 이들에게 보인 그의 우정과 살가운 인간의 정이 느껴진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효도 받으려면, 효도 가르쳐야죠”

무구 스님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 우리출판사 대표)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6번지. 1983년에 문을 연 수효사. 그곳엔 복지관이 함께 있다. 8층짜리 건물엔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란 간판이 걸려 있다. 12월 11일, 대표이사 무구 스님을 만났다.

1층 법인사무국, 우리출판사, 2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층 실버하우스, 5층 수효노인요양시설, 6층 효림데이케어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연꽃간병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자원봉사실, 수효사회복지대학, 7층 요사채, 따주기 공덕회, 그리고 8층이 수효사다.

스님은 아직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약속 시간이 아직 남아있었다. 주인 없는 방에서 스님을 기다려야 했다. 책장에 꽂힌 책들 앞에 사진 한 장이 놓여있다. 백발의 할머니 일고여덟 분이 앉아있고 그 사이에 무구 스님이다.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할머니들과 스님이 함박 웃고 있다. 왠지 준비해간 질문들의 대답들이 그 사진 속에 있는 듯 했다. 수첩에 적을 수 없고, 녹음기로는 담을 수 없는 대답들이 거기 있는 듯했다. 잠시 후 스님께 들어야 할 대답들이 그 사진 속에서 시작될 것 같았다.

약속 시간이 되자 사진 속의 스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역시 사진 속에서 보았던 웃음 그대로다. 그토록 환하게 웃고 있는 스님에게도 어두운 시간은 있었다.

두 번의 출가

청소년 시절부터 여느 아이들과는 많이 달랐던 스님은 어른들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 스님이 되고 싶다고 했단다. 중학교 때 해남 대흥사 근처 이모님 댁에서 지냈던 스님은 이모부와 이모를 따라 대흥사에 갔다가 한 스님을 뵙게 되는데, 맑고 곧은 스님의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불교’라는 씨앗이 가슴 속에 뿌려진 순간이었다. 중학생 소녀에게는 그 ‘스님’이 곧 ‘불교’였다. 스님은 그 뒤부터 막연하게나마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연’이었다. 무구 스님은 그 영향으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다.

스님은 청소년 시절부터 삶에 대해 남달리 진지했다. 마냥 즐겁고 해맑아야 할 중학생 소녀의 마음속엔 늘 ‘산다는 것’이 들어 앉아 있었다. “산다는 것이 과연 무얼까?” 소녀는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학생 소녀에게 그 의문은 버거운 것이었다. 교실 칠판에도, 세상을 이야기하는 많은 책 속에도 그 버거운 의문의 대답은 없었다.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들은 이십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삶은 공허하기만 했다. 스님의 마음은 산다는 것, 즉 생사(生死)의 문제로 가득했다.

부처님을 비롯해 많은 불제자들이 그랬듯이 결론은 출가였다. 출가한 스님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스님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가를 후회했다. 스님은 출가만 하면 생사의 의문을 풀기 위해 수행하고 또 수행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행자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수행은커녕 하루 종일 절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수행자의 생활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첫 출가를 접은 스님은 다시 몇 년의 세월을 의문 속에서 보낸 뒤 다시 발심하게 된다. 스님은 ‘불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첫 출가를 너무 쉽게 접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출가했고 알게 됐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일 속에 수행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대문 없는 절(포교당)

출가자 본분의 회향은 전법이다. 스님은 도심에서 포교당을 하고 싶었다. 1983년 스님은 지금의 자리에 수효사를 세운다. 그런데 수효사엔 대문이 없었다. 스님은 도심에 있는 절이라도 절에 대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절이란 누구나 언제라도 오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문 없는 절, 수효사는 절이라기보다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자기 집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으면 수효사에서 가족을 기다렸다. 약속도 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수효사에서 만났다. 어려운 이들도 수효사를 찾았다. 수효사에 가면 하루에 밥 한 끼 값을 받아갈 수 있었다.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들이 수효사를 찾았다. 수효사는 배고픈 사람은 허기를 달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위안을 받아가는 곳이었다. 그렇게 수효사는 불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들르는 곳’이고, 힘든 이들이 ‘찾는 곳’이었다. 수효사와 무구 스님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곳이었고, 그런 존재였다.

이미 시작된 복지

많은 사람들이 수효사를 찾았고, 스님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효사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의 고단함을 듣고 싶었다. 스님은 1983년부터 ‘자비전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상담전화를 개설했다. 스님은 더 많은 중생의 아픔을 듣게 됐다. 스님은 앉아서 오는 이를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찾아가는, ‘봉사’를 생각했다.

명절 때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제수음식을 만들어 배달했고, 평소에는 정기적으로 반찬을 만들어 배달했다.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 반찬 배달을 간 봉사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까지 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었다. 그렇게 지역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던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의 양로원을 찾았다. 보육원을 찾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전했고,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문했다.

첫 출가 접은 후 ‘일=수행’ 알게 돼
1983년 상담전화 ‘자비전화’ 개설

독거노인 대상 제수용품 · 반찬 배달
양로원 · 보육원 · 군부대 방문 봉사
2004년 법인 수효사효림원 설립
효림데이케어센터 등에 50여 명 수용

1980년 출판사 설립 200여 종 출간
남은 원력 복지인력양성과 교육
묵언 · 단식 등으로 수행자 본분 재발심

그렇게 수효사와 무구 스님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였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의 ‘노후’를 부탁하기 시작했다. 기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많이 힘들어졌을 때 자신들의 말년과 죽음을 거두어 달라며, 적지만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스님에 의탁했다. 그런 어르신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하더니 꽤 많은 어르신들과 기탁금이 쌓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어르신들이 힘든 시기를 맞기 시작했다. 거동이 힘들어지고 치매가 찾아왔다. 스님은 그 어르신들을 거두어야 했다. 하지만 ‘수효사’와 ‘무구’라는 이름만으로는 그들을 거둘 수 없었다. 마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선 사회와 제도로부터의 인정과 지원이 필요했다.

스님은 2004년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을 설립한다.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은 2개월만에 설립 인가가 났다. 실사가 필요 없었다. 따질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수효사’와 ‘무구 스님’이 오래 전부터 복지를 해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인’이란 간판은 뒤늦게 달았지만 수효사가 문을 연 그날부터 복지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 수효사효림원 산하에는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용과 방문을 병행해 운영하는 주 · 야간보호서비스 효림데이케어센터와 효림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운

복지관을 둘러보며 어르신과 담소하는 무구 스님.

무구 스님은 1980년 우리출판사를 설립했다.